

지부 職制도

체계화 돼야



지부의 입장에서

경북지부상무 최 순 임

1962년 11월 그해가 저물어 갈때 제가 경북지부 상무로 처음 부임할 때는 무엇인가 지부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해보리라고 결심하고 시작하였으나 원태가 무능하고 부족한 탓으로 오늘날이 되도록 뚜렷한 공적하나 남기지 못하고 세월을 보낸 셈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 남의 눈의 티를 뿜으리요”라는 말씀대로 지부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감히 협회에 바란다 하고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신 기회이니 바라던 바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대표자를 국회로 보냅니다. 회원들의 원하는바 직제문제, 처우개선 등 권익문제를 건의코자 도지사, 시장, 보건소장들을 방문하였으나 아무 해결을 얻지 못하고 돌아올 때 심정은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속

히 입법부에 나가서 우리를 대변하여 싸우기도 하시고 원하는 법조문을 건의도 하여 위협이 막아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둘째, 직제의 명칭을 체계화 합니다. 본회의 상무는 총무에서 사무국장으로 점차 개칭되었으나 지부의 상무는 만년 상무라고만 부르고 있으니 부르는 명칭도 체계적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비슷한 예로 보사부에 간호사업과장이 간호담당관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또 변해졌으나 지방의 도청에 내려와서는 간호계장직도 없이 보건계에 간호감독관이 있어서 간호원의 일들을 맡아보고 있는 실정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협회라도 하루바삐 상하체제나 사무체제를 정연하게 정비하여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여 보사부에도 어떤 자극의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셋째로 상무교육을 해마다 한번씩이라도 개최하여 사무적인 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족한 면을 깨우쳐 주셔서 좀더 지부발전에 능률적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협회발전의 한모퉁이를 자신있게 훌륭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실무자는 만능이어야 하겠다는 것을 실무를 보아오면서 여러번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외교에도 사무에도 법규에도 회원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소유해야 되겠으니 꼭 교육을 시켜서 협회가 바라는 실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